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弘道 〈醉後看花圖〉의 재검토*

유옥경**

- I. 머리말
- II. 《중국고사도8첩병풍》〈취후간화도〉의 재검토
- III. 〈취후간화도〉의 모티프 규명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弘道(1745~1806)의 《중국고사도8첩병풍》 중의 한 폭인 〈醉後看花圖〉에 주목하여 작품이해의 올바른 규명을 시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 (도 1). 그 간 학계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북송의 林逋(967~1028)가 西湖의 孤山에 은거하며 梅花와 鶴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S850)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¹ 〈취후간화도〉가 포함된 《중국고사도8첩병풍》에는 〈東山雅襟圖〉, 〈赤壁夜泛圖〉, 〈已橋受書圖〉, 〈洞庭飛劍圖〉, 〈峴岬輕裘圖〉, 〈指端觀月圖〉, 〈雲臺晝眠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원래 병풍의 형태이나 현재는 각각 족자(軸)로 장황되어 있다. 《중국고사도8첩병풍》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유옥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弘道 〈雲臺晝眠圖〉의 재검토」, 『미술사논단』 45 (2017. 12), pp. 229-232에서 논의되었다. 수록된 작품들은 50대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p. 204.



도 1 金弘道, 《醉後看花圖》, 《중국고사도8첩병풍》, 18세기, 비단에 담채, 98.2×48.5cm, 국립중앙박물관

벗 삼은 故事를 담은 그림으로 소개되어 왔다.² 임포 관련 의 회화에는 대개 한 두 그루의 매화나무와 학이 그려지고, 이에 조응하는 문인이 표현되기 때문이다.³ 그러나 필자는 <취후간화도>의 畫題와 화면상의 모티프 구성의 검토를 세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林逋故事圖로 명명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고 이에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취후간화도>는 시각 문화적 표상물이면서 인물화의 주제와 제재로도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술사 분야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내재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후간화도>의 주제가 북송대 邵雍(1011~1077)의 洛陽 安樂窩에서 은거하며 安貧樂道를 실천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 초점을 맞춰 문헌 분석과 도상 분석을 병행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醉後看花’ 화제의 문헌적 원형을 추적하여 주제의 의미를 밝히겠다. 이어 <취후간화도>가 포함된 《중국고사도8첩병풍》속 <雲臺晝眠圖>와의 상관성을 살펴 ‘邵雍故事圖’임이 더욱 확연해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화면을 구성하는 세부도상을 ‘安樂窩’ 이미지, ‘梅花’ 이미지, ‘鶴’ 이미지로 대별하여 그 시각 이미지의 내재적이며 심층적인 분석도 함께 고찰하

2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간송미술관 편저,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삼성문화재단, 1995), 도판해설 180 참조; 진준현, 앞의 책, p. 5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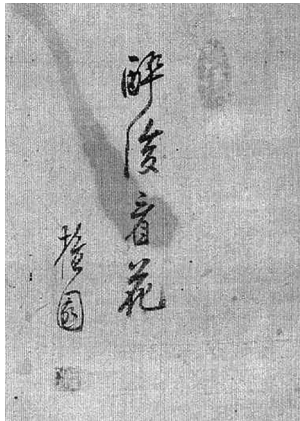
3 “林逋隱居孤山 嘗畜兩鶴”이라고 했다. 왕세정 산정, 김장환 옮김, 『세설신어보』(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p. 155.

4 그동안 소옹의 주제와 관련되는 연구는 철학, 도교학, 문학 등의 단행본이나 논문 속에서 언급되어 왔다. 단행본으로는 이창일, 『소강절의 철학—先天易學과 상관적 사유』(심산, 2007); 박신한, 『조선유학과 소강절 철학』(예문서원, 2014)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정병석, 『소옹 탄생 1000주년 소옹의 선천역학』, 『지식의 지평』 11 (2011. 10), pp. 280-291; 이봉호, 『진단과 소옹의 역학의 관련성』, 『도교문화연구』 25 (2006. 11), pp. 93-120 등이 있다. 미술사 영역에서의 송희경의 『조선후기 邵雍故事圖의 유형과 표상』, 『石堂論叢』 49 (2011. 3), pp. 55-90도 주목된다. 소옹의 ‘花外小車’와 ‘天津杜鵑’, ‘漁樵問對’에 나오는 구절을 토대로 한 고사인물화를 선별하여 제제안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였다. 중국에서의 林素芬의 『從觀物到安樂—論邵雍生命哲學的實踐開展』, 『國立臺灣師大學報:語言與文學類』 57 (2012. 9), pp. 1-21도 찾을 수 있다.

1. ‘醉後看花’ 畫題 분석

〈취후간화도〉는 전체적으로 필치가 섬세하며 정돈된 면모를 보여준다. 화면 상단에 ‘醉後看花’의 화제와 함께 ‘檀園’의 표지, 그리고 朱文方印이 1顆가 찍혀 있다(도 1-1). 그림의 제재나 주제에 의해 명명된 작품의 제목인 화제는 작품분석에 있어 가장 실증적인 1차 자료이다. 〈취후간화도〉 속의 인물이 임포가 아닌 소옹이 그려졌음의 단초는 화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취후간화’ 화제의 문헌적 원형은 소옹의 시문집인 『伊川擊壤集』권10 「安樂窩中吟」의 제 7수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술은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좋은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라”라고 한 부분에서이다.⁶ 제11수에서도 “술 마시되 만취하게 되지는 말 것이며, 꽃구경하되 만개한 모습은 절대 보지 말아야지”라고 했다.⁷ 두 시 모두 소옹의 안락와에서의 사물의 이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觀物詩이다. 소옹은 낙양에 은거하며 자신의 집을 ‘安樂窩’라 이름 짓고 학문에 전념한 인물이다.⁸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朱子(1130~1200)도 『邵子之書』에서 ‘취후간화’를 인용하면서 “소강절은 매사에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문득 머물렀으니, 예를 들면 ‘꽃을 보되 만개한 모습은 절대 보지 말아야지’라고 했다”라고 기록하였다.⁹ 조선의 申欽(1566~1628) 역시 “소씨가 말하기를 ‘꽃을 감상하려면 피지 않았을 때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開花 속에는 바로 落花의 이치가 잠재해 있는 까닭에 이미 피고 나면 떨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¹⁰ 俞肅基(1696~1752) 또한 『又賦梅』에서 “꽃 피기 전엔 조금하여 늦게 피는 것을 늘 싫어 하였더니 이미 활짝 핀 후엔 다시 질 것을 걱정하네. 이제야 알



도 1-1 〈취후간화도〉의 ‘醉後看花’ 화제

6 “美酒飲教微醉後 好花看到半開時”라고 했다. 邵雍撰, 『伊川擊壤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79), p. 76.

7 “飲酒莫教成酩酊 賞花慎勿至離披”라고 했다. 소옹 찬, 위의 책, p. 77.

8 『송사』卷427 「소옹열전」에서의 “소옹은 자가 요부이고, 그 거처를 ‘안락와’라 이름 짓고 스스로 ‘안락선생’이라고 하였다(邵雍 字堯夫 名其居曰安樂窩 因自號安樂先生)”라고 했음을 찾을 수 있다. 脫脫 等撰, 『宋史』(北京中華書局, 1985), pp. 12726-12727.

9 “康節凡事只到半中央便止 如看花切勿看離披是也”라고 했다. 朱子撰, 『朱子語類』卷100 (長沙岳麓書社, 1997), p. 2289.

10 “邵氏之言曰 好花須看未開時 蓋開便有落之理 已開則怕其落也”라고 했다. 申欽, 『春城錄』, 『象村稿』卷55.

졌네. 소옹이 사물의 이치 꿰뚫어보고, 꽃을 볼 때 반개한 때만을 취한 그 이유를”이라고 했다.¹¹ 이들의 주장은 모두 소옹이 사물의 이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했음에 공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옹이 생각한 ‘관물’의 이치는 무엇일까. 그 이치는 소옹의 우주론적 사유를 펼친 철학서인 『皇極經世書』에 실린 「漁樵問對」를 통해서 드러난다. “관물이라고 말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써 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소옹은 “나로써 사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써 사물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라고 강조했다.¹² 눈으로 보는 외면적인 사물이 아니라 이치를 통해 바라보는 관물의 이치가 중요함을 주목한 말이다.

더불어 소옹은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천지음양의 이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도 파악된다. 소옹의 「觀物吟」은 봄날 한적한 일상에서 천지만물의 생성 원리를 관조한 내용이다. “耳目聰明한 남자 몸으로 태어났으니, 천지조화의 부여가 빈약하지 않구나. 乾이 뿔을 만난 때에 月窟을 보게 되고, 地가 雷를 만난 곳에서 天根을 볼 수 있으니, 천근 월굴이 한가로이 왕래하는 가운데 삼십육궁이 온통 봄이로구나”라고 했다.¹³ 월굴은 陰에 해당하고, 천근은 陽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천지 음양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¹⁴

주자도 「六先生畫像贊」에서 소옹에 대해 “하늘이 특별히 뛰어난 인재를 낳아, 뛰어난 자질 세상을 뒤덮었네. 바람을 타고 우레를 채찍질하여, 끝없이 너른 곳 두루 구경하였네. 손으로는 월굴을 더듬고 발로는 천근을 밟았네. 고요함 속에 고금을 넘나들고, 취한 중에 건곤을 보았다.”라고 평했다.¹⁵ 주자의 이런 글은 명대 杜堇(15~16세기 초)의 〈邵雍像〉(도 4), 『三才圖會』속 〈邵康節像〉, 呂維祺가 편찬한 『聖賢像讚』(1632) 속 〈先儒邵子像〉(도 5), 청대 화가 上官周(1665-1749)의 『晚笑堂畫傳』(1743) 속 〈邵堯夫像〉 등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 특히 두근의 〈소옹상〉은 주자가 소옹에 대해 평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바람을 타고

¹¹ “未開躁躁常嫌遲 既盛忡忡更怕衰 始識邵翁透物理 看花惟取半開時”라고 했다. 俞肅基, 「又賦梅」『兼山集』卷1.

¹² “觀物者 非以目觀之也 非觀之以目 而觀之以心也 非觀之以心 而觀之以里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라고 했다. 邵康節 지음, 노영균 옮김, 『皇極經世書』(대원출판사, 2002), p. 332.

¹³ “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間往來 三十六宮都是春”이라고 했다. 胡廣 等奉勅纂, 『性理大全書』卷70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521.

¹⁴ “蓋云天理流行”이라고 했다. 朱子 撰, 앞의 책, p. 2296.

¹⁵ 「육선생화상찬」은 주자가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 사마광의 초상화에 평을 한 것이다. 『朱子全書』卷85 「六先生畫像贊」에서의 “天挺人豪 英邁蓋世 駕風鞭霆 歷覽無際 手深月窟 足躡天根 閑中今古 醉裏乾坤”이라고 했음을 찾을 수 있다. 朱熹 撰, 朱傑人, 嚴佐之, 劉永翔主(共)編,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 2010), p. 4002.



도 4 杜堇, 〈邵雍像〉, 明, 종이에 수묵, 67.3×27.4cm, 북경고궁박물관(中國美術全集·繪畫編) 6,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8, 圖133)

도 5 〈先儒邵子像〉, 『聖賢像讚』, 1632(『中國歷代人物像傳』 1권, 濟南濟魯書社, 2002, p. 416)

도 6 金弘道, 〈花外小車圖〉, 《중국고사도8첩병풍》, 18세기, 종이에 담채, 111.9×52.6cm, 간송미술관(『檀園金弘道·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 삼성문화재단, 1995, 圖174)

道服의 끝자락을 휘날리며, 천근과 월궁을 마음대로 왕래하는 듯한 소옹의 모습이 포착된다. 조선의 申欽(1566~1628)도 『壁上五賢圖』에서 소옹에 대해 “천고에 인물로는 소부자가 특출하지 천근과 월궁을 마음대로 다녔으니”라고 했다.¹⁶

나아가 안락와에서의 사물을 관찰하는 뜻을 보여준 ‘취후간화’의 화제는 간송미술관 소장 김홍도의 《중국고사도8첩병풍》속 〈花外小車圖〉와도 연계된다(도 6). 이 작품은 봄과 가을에만 출타하는 소옹의 습관대로¹⁷ 꽃피는 계절 사마광과 소옹이 만나기로 한 내용을 그린 것이다.¹⁸ 또한 ‘花外小車’의 의미는 正祖(재위 1777~1800)의 시문집인 『弘齋全書』권103 『經史講義四十

¹⁶ “千古人豪邵夫子 天根月窟任閒行”이라고 했다. 申欽, 『壁上五賢圖』, 『象村集』卷20.
¹⁷ 『송사』 卷427 『소옹열전』에서의 “봄가을에 성으로 나가 놀았는데, 나갈 때는 작은 수레를 탔다(春秋時出遊城中 出則乘小車)”라고 했다. 脫脫等撰, 앞의 책, p. 12727.
¹⁸ ‘화외소거’의 화제는 사마광이 소옹을 기다리며 읊은 시 중에서 보인다. 『이천격양집』 卷10 『崇德久待不至』에서의 “숲 사이 높은 누각에서 바라본 지 오래인데, 꽃 너무 작은 수레는 아직도 오지를 않네(林端高閣望已久 花外小車猶未來)”라고 했다. 邵雍撰, 앞의 책, p. 70.

○易(三)』의 기록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수록된 내용 가운데 尹行恮(1762~1801)은 “대체로 소자가 작은 수레를 몰고 다니되 울긋불긋하게 화려함이 짙은 데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대개 十二窩¹⁹ 중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뜻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여 천지음양의 이치를 중요히 여긴 소옹의 관물론에 주목하였다.²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화외소거’는 태평시대의 표상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李滉(1501~1570)은 「黃仲舉求題畫十幅」속 ‘康節兒車’에서 “至인이 태어나 태평한 시대 만나니, 우주의 작은 수레 즐거운 일 온전하네”라고 하였다.²¹ 尹權(1741~1826)의 「皇極經世書」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즐겁고 화려한 태평 시대의 기상이 완전히 天門 거리 꽃나 무 너머 작은 수레에 다시 돌아왔으니, 곧 한 분의 태평스런 노인이다”라고 한 것이다.²² 다시 말해 김홍도는 ‘취후간화와 ‘화외소거’의 화제를 달리하여 사물을 관찰하는 뜻과 태평세의 함의를 함께 드러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락와의 사물을 관찰하는 뜻을 보인 ‘취후간화’의 화제는 『주역』의 ‘豐卦’와도 상관되는데 그 사실은 역시 『홍재전서』 「經史講義四十〇易(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풍괘의 의의는 잘 응용하면 꼭 찬 것을 유지하고 가득함에 처하였을 때에 두려워하는 경계가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 풍성함을 누리고 富大함을 즐기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邵子가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는 이르지 않고 꽃을 구경하되 활짝 핀 것을 구경하지 않은 것은 어찌 이러한 곳에서 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내용이다.²³ ‘풍괘’는 『주역』 「雷火豐」을 이른다. 즉 “해가 중천에 이르면 기울기 시작하고, 달이 차면 이지러진다.”라고 한 부분이다.²⁴ 만물이 왕성해지면 곧바로 쇠약해 떨어지는 것은 천지의 변하지 않는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역』 ‘풍괘’의 말은 임금의 경우는 더욱 삼가고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日省錄』 정조 4년(1780)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천둥과 번개가 함께 이르는 것이 풍괘이니, 풍이란 크다는 뜻이다. 성인이 이를 본받아 못사람들의 심정을 살피고 천하 사람들을 鼓舞시켜 만물이 모두 마땅함을 얻어 온 세상이 풍요를 누린다”라고

¹⁹ ‘十二窩’에 대한 각주의 내용에 따르면, “소옹의 幽居인 ‘안락와’를 가리킨 듯하나, 未詳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참조.

²⁰ “大抵邵子 驅小車而不至於千紫之霞濃者 槩有得於十二窩中觀物之義也”라고 했다. 정조, 「經史講義」 40, 『홍재전서』 卷103.

²¹ “至人生遇太平天 宇宙兒車樂事全”이라고 했다. 이황, 「黃仲舉求題畫十幅」, 『退溪集』 卷2.

²² “熙熙乎嗶嗶 乎康衢氣象 宛然復回於天門街花外小車 則居然一含哺鼓腹之老人也”라고 했다. 尹權, 「皇極經世書」, 『無名子集』 7册.

²³ “豐之一卦 善用之則爲持盈履滿之戒 不善用之則爲豐亨豫大之論 邵子所以飲酒不至酩酊 看花不取離披 豈亦有見於此等處耶”라고 했다. 정조, 앞의 책.

²⁴ “日中則昃 月盈則食”이라고 했다. 김인환 역해, 『주역』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p. 436.

했다.²⁵

이런 내용들을 통해 ‘취후간화’의 화제에는 소옹의 안락와에서의 사물을 관찰하는 뜻과, 『주역』 ‘풍괘’의 의미, 그리고 태평세의 화려한 기상이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陳搏, 邵雍 先天易學의 傳授

화제 검토에 이어 <취후간화도>가 포함된 《중국고사도8첩 병풍》 중의 <운대주면도>가 주목된다(도 7). <운대주면도>는 당나라 말에 태어나 五代十國의 혼란기를 거쳐, 송나라 초기까지 살았던 陳搏(871~989)의 ‘華山睡隱’의 고사가 담겨있는 작품이다.²⁶ <취후간화도>와 <운대주면도>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진단과 소옹은 先天易學 傳授의 師承關係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취후간화도> 속에 소옹 고사가 담겨있음이 더욱 확연해 짐을 알 수 있다.



도 7 金弘道, <雲臺晝眠圖>, 《중국고사도8첩병풍》, 18세기, 비단에 담채, 98.2×4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옹은 동양철학사에서 북송대에 선천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의 흐름을 창시한 인물이면서 남송 주자학 성립에 영향을 미친 신유학의 이론가로 평가된다. 『송사』권427 「소옹열전」에서 “북해의 李之才(?~1045)에게 『하도』·『낙서』 및 북희의 8괘 64괘의 도상을 전수받았다.”라고 했음을 찾을 수 있다.²⁷ 소옹의 역학은 천지생성의 원리를 밝히므로 북희의 팔괘이고 그래서 ‘先天之學’이라는 뜻이다.²⁸ 조선의 張顯光(1554~1637)도 「觀物賦」에서 “선천학이 만세에 발명됨은 실로 소자에게서 열려졌으니”라고 했으며,²⁹ 「空中樓閣賦」에서 “선천에서 법을 얻고 북희의 괘효에서 묘한 기틀을 얻어 무극의 태극을 중주로 하고 마침내 이

²⁵ “雷電皆至爲豐 豐者大也 聖人法之 照察群情 鼓舞天下 致萬品之咸若 享一世之豐富”라고 했다. 『日省錄』, 正祖 4年(1780) 11月 癸巳.

²⁶ <운대주면도>에 대한 분석은 유옥경, 앞의 논문, pp. 227-249에서 고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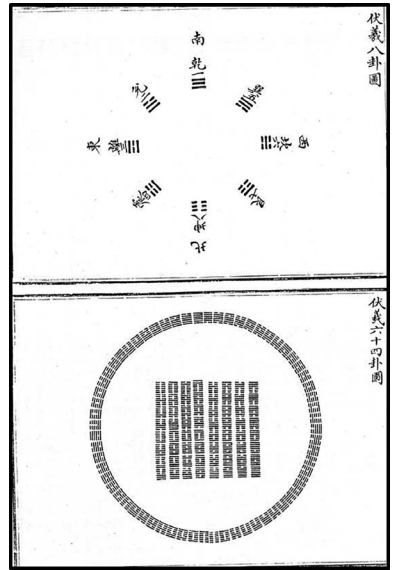
²⁷ “北海李之才 受河圖洛書伏羲八卦六十四卦圖像”이라고 했다. 脫脫等撰, 앞의 책, p. 12726.

²⁸ 邵康節 지음, 노영균 옮김, 앞의 책, p. 15.

²⁹ “先天學發明於萬世 鑰實啓於邵子”라고 했다. 張顯光, 「觀物賦」, 『旅軒集』卷1.

것을 법으로 삼았네”라고 했다.³⁰ 소옹의 선천이 태극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취후간화도〉의 ‘매화’ 이미지 분석에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다. 소옹의 선천역은 그의 철학서인 『황극경세서』와도 상관된다. “송대 蔡元定(1135~1198)이 말하길, 『황극경세서』는 소강절 선생의 先天之學으로 그道는 일관되게 伏羲의 掛圖에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했다.³¹

그러나 소옹이 전수 받은 이지재의 역은 진단에게 근원이 있었다.³² 그 근거는 『송사』권435 「朱震列傳」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진(1072~1138)에 의하면 소옹이 말하는 선천역은 송대 초기 진단에서 출발하여 種放(955~1015)·穆修(979~1032)를 거쳐 이지재에 이르고 여기에서 소옹에게 전달된다고 하였다.³³ 이러한 전승 관계는 소옹의 사상 체계가 정통적인 유학에 연원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종종 해석되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부분적인 학문 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소옹의 전체적인 사상 내용은 결코 유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시각에서 말할 경우 주자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자도 그의 대표적인 주역 연구 저서인 『易學啓蒙』에서 소옹의 상수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주자의 『역학계몽』에는 진단에서 소옹에 이르는 선천역학의 흐름의 맥이 담겨 있는 〈伏羲8掛圖·伏羲64掛圖〉가 들어있다(도 8). 『周易本義』卷首에서도 주자는 “소씨는 이지재로부터 그 설을 얻었고, 이지재는 목수에게서 얻었으며, 목수는 화산의 희이선생



도 8 〈伏羲8掛圖·伏羲64掛圖〉, 『易學啓蒙』, 宋(『性理大全書』14권,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336)

³⁰ “得成法於先天 契妙機於義畫 宗無極之太極 遂以爲其極”이라고 했다. 張顯光, 「空中樓閣賦」, 앞의 책.

³¹ “西山蔡氏曰 皇極經世之書 康節先生以爲先天之學 其道一本於伏羲掛圖”라고 했다. 邵康節 지음, 노영균 옮김, 앞의 책, p. 30.

³² 『宋史』卷457 「陳搏列傳」에서의 “진단은 역을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놓지를 았았다(搏好讀易 手不釋卷)”라고 했다. 脫脫等撰, 앞의 책, p. 13421; 『唐才子傳·陳搏』에서도 “『周易』 「象傳」의 현묘한 이치에 대해 특별히 깊은 연구가 있었다(易象玄機 尤所精窮)”라고 했다. 辛文房 지, 임동석 해제, 역주, 『당재자전』(김영사, 2004), p. 1076.

³³ “陳搏以先天圖傳種放 放傳穆修 穆修傳李之才 之才傳邵雍”이라고 했다. 脫脫等撰, 앞의 책, p. 12908.

³⁴ 정병석, 앞의 논문, p. 281.



도 9 李慶胤, 〈高士讀書圖〉, 《山水人物畫帖》, 16-17세기, 종이에 수묵, 26.8×32.5cm, 호림박물관

진단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이른바 선천의 학문이라는 것이다.”라고 했다.³⁵ 나아가 청대 학자인 黃宗羲(1610~1695)의 『宋元學案』권12 「濂溪學案(下)」을 통해서도 소옹과 진단의 선천역학 전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³⁶

한편 소옹 선천역학의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李慶胤(1545~1611)의 전칭 작으로 알려진 호림박물관 소장 《산수인물 화첩》속 〈高士讀書圖〉가 주목된다(도 9). 화면 상단의 제시에서 “향로 하나 술병 하나에 책이 한 권이니 나는 선생의 책이 선

천 아니면 후천인 것을 알겠네”라고 했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화면에서 책을 들고 있는 인물이 소옹일 가능성이 크다. 주자의 “소옹의 설명에 따르면, 선천이란 복희가 그린 『역』이고, 후천이란 문왕이 부연한 『역』이다”라고 했음이 참고된다.³⁸ 李珥(1536~1584)도 『易數策』에서 “소자는 이미 역학의 리에 밝고, 또 역학의 數에 정통하여, 복희씨 先天의 學과 문왕 後天의 數를 정밀히 분석하되 숨씨가 능통하여 막힌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³⁹ 천지만물의 이치와 象數에 정통한 소옹의 모습에 접근된다.

이런 소옹 선천역학의 특징은 앞선 화제 분석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취후간화도〉의 모티프 규명의 단초를 제시한다.

³⁵ “邵氏得之李之才挺之 挺之得之穆修伯長 伯長得之華山希夷先生陳搏圖南者 所謂先天之學也”라고 했다. 朱熹撰, 『周易本義』(北京中國書店, 1987), p. 10.

³⁶ 黃宗羲 原著, 全祖望 補修, 陳金生, 梁運華 點校, 『宋元學案』(北京中華書局, 1986), pp. 514-515.

³⁷ “一香爐一酒壺書一編 吾知先生之書非先天則後天”이라고 적혀 있다. 이 시는 조선중기 崔岾(1539~1612)의 『前於散畫帖 題其中以還 今復要畢寫 爲四首』, 『簡易集』卷8에도 수록되어 있다.

³⁸ 『朱子大全』卷38 「答袁機仲」에서 “據邵氏說 先天者伏羲所畫之易也 後天者文王所演之易也”라고 했다. 주희 지음, 주자대전번역연구단 옮김, 『주자대전』(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2010), p. 319.

³⁹ “邵子既明易理 又精易數 於伏羲先天之學 文王後天之數 剖析精微 遊刃無礙”라고 했다. 李珥, 『易數策』, 『栗谷全書』卷14.

Ⅲ. <취후간화도>의 모티프 규명

이번 장에서는 <취후간화도>의 모티프를 검토하여 '邵雍安樂窩圖'임을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취후간화도>에는 草屋 한 채와, 마당 앞쪽의 매화 한 그루, 그리고 집 뒤란의 鶴 두 마리가 표현되었다. 이에 전거하여 '安樂窩' 이미지, '梅花' 이미지, '鶴' 이미지로 대별하여 그 시각 이미지의 내재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

1. 安樂窩 이미지, 邵雍 安貧樂道

<취후간화도>의 중심에는 단칸의 초옥 한 채가 표현되었다. 초옥은 소옹이 낙양에서 은거하며 安貧樂道의 생활을 즐겼던 '안락와' 이미지로 상정할 수 있다(도 1-2). 조선시대 문헌상의 '邵康節 安樂窩'가 그려진 경우는 16세기의 문인이자 관료였던 張顯光(1554~1637) 관련 기록에서 보인다. 장현광은 金休(1597~1638)의 아들 萬雄에게 여덟 가지 화제를 그리도록 했는데 일곱 번째 화제에 '七日邵康節安樂窩'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소옹은 처음 수 년 동안 생활이 淸困한 경우를 제외하면 30년 동안의 낙양 시절을 '편안함(安)'과 '즐거움(樂)' 속에서 지냈다고 할 수 있다.⁴¹ 『송사』권427 「소옹열전」에서의 “처음으로 낙양에 와서 가끔 쌀독이 비어 굶는 생활(屢空)을 하면서



도 1-2 <취후간화도>의 '安樂窩' 이미지

⁴⁰ “一日帝堯茅茨土階 二日帝舜南薰殿彈琴 三日周公坐而待朝 四日孔子杏壇授受 五日周濂溪庭草交翠 六日程明道傍花隨柳 七日邵康節安樂窩 八日朱晦庵武夷精舍”라고 했다. 金休, 「敬慕錄(門人金休)」, 『旅軒先生續集』卷9; 또한 장현광의 9대손인 張錫英(1816~1926)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소강절안락와도’에 관하여 “洛陽兒戲因相逃安樂窩中一枕高覺 得世間無着手 怎麼只是死賢豪 右邵康節安樂窩”라고 했다. 張錫英, 「用先祖文康公畫屏命題家藏八帖屏八絕」, 『晦堂集』卷1.

⁴¹ 38세 즈음 낙양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67세에 죽었다. 『이천격양집』卷14 「安樂吟」에는 “안락 선생은 성씨를 드러내지 않고 삼십년 동안 낙수가에서 살았다(安樂先生 不顯姓氏 垂三十年 居洛之浹)”라고 했다. 소옹 찬, 『이천격양집』, 앞의 책, p. 106.

도 유유자적하였다. 자신의 거처를 ‘안락와’라 이름 짓고 아울러 ‘안락선생’이라고 자호하였다. 흥이 일면 문득 시를 지어 스스로 읊었다.”라고 했다.⁴² 여기서 말한 ‘누공’은 자주 끼니를 굶는다는 말로, ‘안빈낙도’를 뜻하는 표현이다.⁴³ 조선후기 실학자 李德懋(1741~1793)도 『士小節』에서 “청나라 朱一是가 말하기를 ‘자고로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서 안빈낙도한 사람들 중에서 소요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했음을 적고 있다.⁴⁴ 『이천격양집』 권13 「安樂窩銘」도 주목된다. “편안함은 정사가 태평한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이 없고 즐거움은 매년 풍년인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⁴⁵ 이런 기록은 모두 소옹이 북송대에 가장 정치가 안정되었던 仁宗(재위 1023~1063), 神宗(재위 1068~1085) 연관을 살면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유유자적하게 살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선후기 孫命來(1664~1722)의 「安樂窩賦」를 통해서도 안락와의 편안함과 음양 시종의 변화를 즐긴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홀연히 낙양에 이르러 쳐다보니, 이곳에 소씨의 거처가 보인다. 음집 비록 작지만 편안한 자리이니, 여기서는 무슨 일 즐겼는지 물어본다. 음양을 정립하여 터전을 닦았고, 四象을 나열하여 대문을 만들었다. 만 가지의 조화가 바뀔을 보고, 사계절이 서로가 순환함을 살폈다.”라고 했다.⁴⁶ 이것은 “집 마당을 나서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바로 볼 수 있으니”라고 한 『이천격양집』 권14 「安



도 10 <邵康節堯夫贊>, 『新刻歷代聖賢像贊』, 1593(『中國歷代人物像傳(續編)』 권1, 濟南齊魯書社, 2014, p. 329)

⁴² “初至洛 雖平居屢空 而怡然有所甚樂 名其居曰安樂窩 因自號安樂先生 興至輒哦詩自詠”이라고 했다. 脫脫 等撰, 앞의 책, p. 12727.

⁴³ 안희의 이른바 ‘안빈낙도’하는 모습을 소옹에게서 볼 수 있다. 『論語』卷11 「先進」에서의 “공자의 제자 안희가 道의 경지를 즐기면서 자주 끼니를 굶었다(回也 其庶乎 屢空)”라고 했음이 참고된다. 공자 저, 박일봉 편저, 『논어』(육문사, 2011), p. 462.

⁴⁴ “朱一是曰 從古以布衣客居 安貧樂道者 莫如邵堯夫”라고 했다. 이덕무, 『士小節(중)』, 『청장관전서』卷28.

⁴⁵ “安莫安于王政平 樂莫樂于年穀登”이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95.

⁴⁶ “留臨晚夫洛社兮 爰得邵氏之攸芋 窩雖小而易安兮 問所樂之何事 奠兩儀而拓址兮 列四象而爲門 萬化之迭嬗兮 看四序之相推”라고 했다. 손명래, 『昌舍集』(密陽孫氏梧谷公派大宗會, 1994), pp. 247-248.



도 11 尹濟弘, 〈隱士步月圖〉, 1833, 종이에 수묵, 67.3×45.4cm, 삼성미술관 Leeum
 도 12 〈宋名儒康節先生像〉, 『余姚邵氏宗譜』, 1888, 浙江省圖書館(百度 <http://www.baidu.com/> 사진참조)

樂吟의 내용과도 상통된다.⁴⁷ 명대 胡文煥(?~?)이 편집한 『新刻歷代聖賢像贊』(1593) 속 〈邵康節像贊〉에서도 안락와의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 이 화상찬은 소옹이 안락와에서 우주를 포괄했음을 보여준다⁴⁸(도 10). 尹濟弘(1764~1840 이후)의 〈隱士步月圖〉 역시 소옹이 안락와에서 유유자적하며 산 모습을 그려서 주목된다(도 11). 화면 상단의 시에 “오동나무 위에 달이 뜨고 버들가지가 바람을 타고 훑날릴 때 지팡이에 기대어 소요하는 사람은 안락와 소옹선생이 아니겠는가? 그 때 가슴 속의 기운을 토했으니 반드시 우주에 가득 찼을 것이다”라고 했다.⁴⁹

그러면 먼저 〈취후간화도〉에 표현된 안락와에서 담소하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다. 두 명의 인물 중에서 頭巾을 쓰고, 어깨에 拂子를 걸치고 있는 인물이 소옹일 가능성이 크다. 『이천격양집』권1 『安樂吟』에는 소옹이 “두건을 쓰기도 하고, 반팔 옷을 입기도 하고”라고 했음의 내용이 보인다.⁵⁰ 이런 사실은 청대 邵友濂(1841~1901)·邵曰濂(1854~1929)이 증보한 소

47 “不出戶庭直際天地”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106.

48 “安樂窩中包宙括宇”라고 했다.

49 “梧桐月楊乘風 倚杖逍遙者 果非安樂窩先生耶 當伊時氣吐胸中 必充塞宇宙矣”라고 했다. 번역은 임재완 역주, 삼성미술관Leeum 고미술 학예연구실 편집, 『(삼성미술관Leeum 소장) 古書畫 題跋 解說集』(삼성미술관Leeum, 2006), p. 48 참조.

50 “或戴接籬或著半臂”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106.

씨 계보인 『浙江余姚邵氏宗譜』(1888)에서의 〈宋名儒康節先生像〉을 통해 더욱 확인해진다. 〈송명유장절선생상〉에서 소옹은 두건과 靈芝 모양의 굵은 머리가 달려 있는 如意를 들고 있다(도 12). 따라서 〈취후간화도〉에 등장한 두건을 쓴 인물이 소옹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옹과 담소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송사』권427 「소옹열전」에는 소옹이 富弼(1004~1083), 사마광, 呂公著(1018~1089) 등의 諸賢과 낙양에서 서로 從遊한 기록이 보인다.⁵¹ 특히, 사마광은 소옹이 낙양 시기에 교류하던 명사들 중에서 교분이 매우 두터웠던 인물로 〈취후간화도〉에서 담소하는 대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⁵² 앞선 〈화외소거도〉를 통해 꽃피는 계절 사마광과 소옹이 만나기로 했음을 찾을 수 있었다(도 6).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옹과 마주하고 있는 인물이 사마광일 가능성은 宋文欽(1710~1752)의 「程秀才訪邵先生圖贊」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송문흠은 이 贊에서 조선후기 화가 李麟祥(1710~1760)이, '사마광이 소옹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적은' 소옹의 아들 邵伯溫(1057~1134)의 『河南邵氏聞見前錄』의 내용을 그렸음을 밝히고 있다.⁵³

다음으로 화면상에 표현된 서안 위에 놓인 두루마리(卷)와 한질(紙)의 책, 그리고 그 주위의 술병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러한 경물의 구성은 마치 『이천격양집』권9 「安樂窩中四長吟」의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 놓은 듯하다.

안락와 속의 쾌활한 사람이여 한가롭게 네 가지 사물과 다행히도 서로 친하구나.
 한편 시집의 편안함은 꽃과 달을 마음껏 거두고 한 질 책의 엄정함은 귀신을 놀래누나.
 한 자루 향의 맑음은 宇泰를⁵⁴ 가득 채우고 한 동이 좋은 술은 참으로 맑구나.
 태평을 스스로 기뻐함이 얼마나 많은지 오직 바라기는 군왕께서 만세수를 하시는 것⁵⁵

위의 내용은 〈취후간화도〉에 표현된 경물의 의미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에 표현된 안

51 『송사』권427 「소옹열전」에서의 “富弼 司馬光 呂公著 諸賢 退居洛中 雅敬雍恆相從遊”라고 했다. 脫脫 等撰, 앞의 책, p. 12727.

52 『송사』권427 「소옹열전」에서의 “사마광은 소옹을 형처럼 섬겼고, 두 사람의 순정한 덕은 더욱 향리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바가 되었다(司馬光兄事雍 而二人純德尤鄉里所慕嚮)”라고 했다. 위의 책, p. 12727.

53 “司馬公訪邵康節事 出於伯溫聞見錄 元靈爲之圖”라고 했다. 宋文欽, 「程秀才訪邵先生圖贊」, 『閒靜堂集』卷7.

54 『莊子』「庚桑楚」에서의 “마음이 태평하고 안정된 자는 영묘한 빛을 발휘한다(宇泰定者 發乎天光)”라고 했다. 장자 지음, 김창환 옮김, 『장자』(을유문화사, 2012), p. 44.

55 “安樂窩中快活人 閑來四物幸相親 一編詩逸收花月 一部書巖驚鬼神 一炷香清沖宇泰 一罇酒美湛天真 太平自慶何多也 唯願君王壽萬春”이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65; 번역은 곽신한 지음, 앞의 책, p. 35 참조.

락와에는 태평을 노래한 시집인 『격양집』과 『황극경세서』, 향로, 술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서안 위의 두루마리의 색지에는 ‘擊壤詩’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에서 말한 ‘한 편 시집의 편안함은 꽃과 달을 마음껏 거두고’라고 했음과 접목시켜 볼 수 있다. 『이천격양집』 서두에서도 “『격양집』은 伊川翁의 自樂之詩이다. 스스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때와 만물의 자득을 즐길 수 있다”라고 했다.⁵⁶ 그렇다면 서안 위의 한질의 책은 『황극경세서』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시에서 말한 ‘한 질 책의 엄정함’과 부합되는데 『이천격양집』권9 『安樂窩中一部書』에서의 “안락와 속의 한 권의 책, 이름 하여 황극이니 그 뜻이 어떠한가”라고 했음을 찾을 수 있다.⁵⁷ 나아가 화면상의 술병 표현 역시 시에서 말한 ‘한 동이의 술과 부합된다. 『송사』권427 『소옹열전』에서의 “저녁 무렵에는 술 서넛 사발을 마셨는데, 조금 취하면 바로 그쳐서 취하는 데에는 늘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⁵⁸ 『이천격양집』권7 『逍遙吟』에서도 “밤에 안락와에 들어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술을 마시네. 정신을 파고들어 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소질을 길러 하늘이 넓다는 것을 깨달았네.”라고 했다.⁵⁹ 반면 화면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시에서의 ‘한 자루 향’도 주목된다. 안락와에서 향을 피웠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송사』권427 『소옹열전』에서의 “아침에는 焚香하고 편안하게 앉았으며”라고 했음이 간취된다.⁶⁰ 조선의 李荇(1478~1534)도 “선생이 안락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맑은 창가에서 향 사르고 성현의 책 읽는 게지”라고 했다.⁶¹ 앞서 살펴본 이경운의 전칭 작으로 알려진 <고사독서도>에서의 소옹이 책을 들고 있는 가운데 책상 위로 향로가 놓여 있음을 찾을 수 있다(도 9).

이런 내용들을 통해 <취후간화도>에 등장한 ‘안락와’ 이미지는 소옹의 안빈낙도의 삶이 투영되어 그려졌고, 그 속에 묘사된 경물 하나하나에도 소옹의 삶이 반영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梅花 이미지, 邵雍 易理

그렇다면 화면상에 등장하는 매화나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안락와의 뜰에는 용틀

⁵⁶ “擊壤集 伊川翁自樂之詩也 非唯自樂 又能樂時與萬物之自得也”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2.

⁵⁷ “安樂窩中一部書 號云皇極意何如”라고 했다. 위의 책, p. 65.

⁵⁸ “晡時酌酒三四甌 微醺即止 常不及醉也”라고 했다. 脫脫 等撰, 앞의 책, p. 12727.

⁵⁹ “夜入安樂窩 晨興飲太和 窮神知道泰 養素得天多”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47.

⁶⁰ “旦則焚香燕坐”라고 했다. 脫脫 等撰, 앞의 책, p. 12727.

⁶¹ “欲問先生安樂意 晴窓一炷讀遺書”라고 했다. 李荇, 『題擊壤集二首』, 『容齋集』卷4.

임하는 듯한 늙은 매화나무가 자리를 잡았고, 나무 가지마다에는 하얀 꽃송이가 표현되었다. 늙은 매화나무는 꽃송이 하나하나에도 生生의 妙가 감돌고 있음이 포착된다(도 1-3). <취후간화도>에서는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는 속성을 보여준다. 매화나무 주위에서는 차를 끓이는 동자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⁶²

먼저 안락와의 매화 이미지는 양기가 태동하는 동짓날의 매화를 연상시킨다. 소옹은 양기가 처음 태동하는 동짓날 매화를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 동짓날 자시 정각이면 양기가 처음 싹트기 시작하는데 만물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며, 음양의 소식 또한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 소옹은 『冬至吟』에서 “동짓날 子半(子正)에, 천심은 고치거나 옮김이 없구나. 하나의 양이 처음 움직이는 곳ियो, 만물이 아직 생기지 않은 때이로다”라고 했다.⁶³ 조선의 문인들도 매화 가지를 보고 소옹의 「동지음」을 연결시켰다. 徐居正(1420~1488)은 “자반에 양이 처음 돌아오매 가지 끝에서 께가 이미 생겼도다”라고 했다.⁶⁴ ‘가지 끝에서 께가 생겼다’는 뜻은 매화의 꽃망울이 터져 나온 것을 가리킨다. 조성기 역시도 “자반에 은미한 양기가 움직이니, 땅 밑에서 봄이 움틀댄다. 나무 끝에 감도는 매화의 신운, 생생의 묘를 꿰뚫어 보았으니”라고 했다.⁶⁵ 『주역』 「繫辭上傳」에서의 “생생을 일러 역이라 한다”라고 했음을 보여준다.⁶⁶ “생생”은 만물이 생겨 퍼져 나가는 자연의 이치를 말한다.

또한 안락와의 매화 이미지는 先天象數學을 대성한 것으로 알려진 소옹이 ‘生生之謂易’



도 1-3 <취후간화도>의 ‘매화’ 이미지

⁶² 『이천격양집』卷13 「自詠」에서 “고요히 앉아서 좋은 차를 마시고, 안락한 것이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靜坐多茶飲 安樂是吾鄉)”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100.

⁶³ “冬至子之半天心无改移 一陽初動處 萬物未生時”라고 했다. 成百曉 譯註, 『(縣社吐完譯)周易傳義(上)』(傳統文化研究會, 1999), p. 535.

⁶⁴ “子半陽初復 枝頭卦已生”이라고 했다. 徐居正, 「畫梅二十韻 奉教製」, 『四佳集』 卷31.

⁶⁵ “微陽動子半 地底已萌春 樹上認梅神 透得生生妙”라고 했다. 趙聖期, 「復和金仲和五首」, 『拙修齋集』 卷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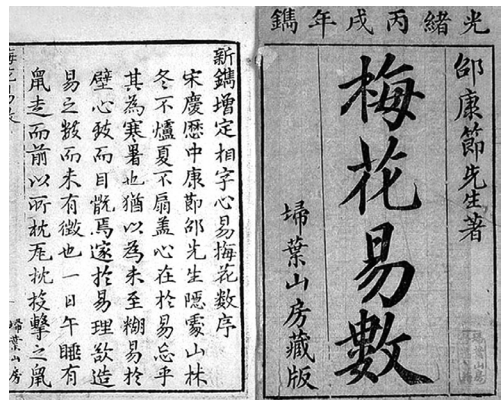
⁶⁶ “生生之謂易”이라고 했다. 김인환 역해, 앞의 책, p. 514.

에 기반한 占術을 창안하고 이를 ‘梅花易數’라 명명한 것과도 연관된다(도 13). ‘매화역수’는 소옹이 매화나무를 관찰하던 중 참새들이 날아와 서로 가지를 다투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날의 연월일시를 근거로 하여 수를 뽑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한 ‘易數’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⁶⁷ ‘매화역수’는 ‘觀梅數’ ‘觀梅占’이라고도 불린다.⁶⁸ 또한 ‘매화역수’가 『주역』 「계사상전」의 ‘開物成務’에 기초한다는 사실은⁶⁹ 고려 李穡(1328~1396)의 「葵軒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만물의 도리를 밝게 알아 일을 성취시켜 주는 것으로서 … 가령 근세에 나온 觀梅의 학술 같은 것도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했다.⁷⁰

나아가, 안락와의 매화 이미지는 만물의 시원이 되는 ‘太極’의 표상과도 연계된다. 조선후기의 문인 金昌翁(1653~1722)은 매화를 감상하는 데에도 여러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매화를 통해 天機를 감상하며 태극의 이치를 보는 주렴계나 소옹 같은 성리학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매화를 감상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 天機가 드러남을 완상하며 꽃송이 하나하나가 태극임을 즐기는 이들이 있으니, 주렴계·소옹과 같은 여러 현인이 그들이다.⁷¹

소옹은 태극을 하나의 보배로 여긴 인물이다. 『이천격양집』 권12 「自作眞贊」에 “구슬 놀이 하다가 틈이 생기면, 한가로이 갔다가 한가로이 오곤 하네”라는 구절이 나온



도 13 邵雍, 〈梅花易數標題〉, 『梅花易數』, 1886,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67 『관매역수』 卷1 「先天占例」중의 ‘觀梅占’에서 찾을 수 있다. “辰年十二月十七日 申時 康節先生偶觀梅 見二雀爭枝墜地 因占之”라고 했다. 邵康節 著, 金浚九 譯解, 金周成 監修, 『觀梅易數』(해들누리, 2001), p. 83.

68 『주역』 「계사상전」에서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점이라 한다(極數知來之謂占)”라고 했다. 김인환 역해, 앞의 책, p.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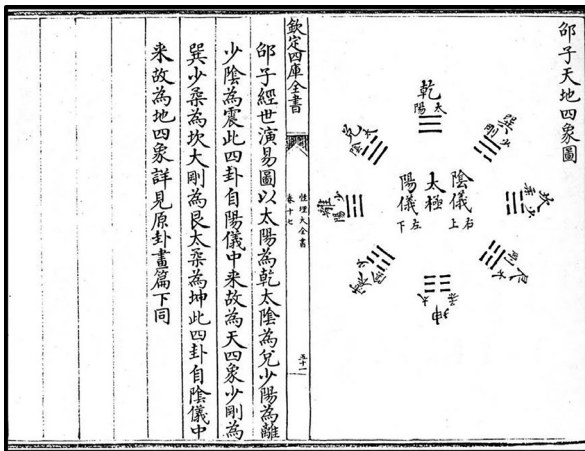
69 “역은 만물의 도리를 알아 일을 성취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천하의 도가 모두 이 속에 내재해 있다(夫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라고 했다. 위의 책, p. 527.

70 “開物成務 … 如近世觀梅之學 亦本於此”라고 했다. 李穡, 「葵軒記」, 『牧隱集』 卷3.

71 “看梅花有許多般 有玩其天機呈露 箇箇太極而樂者 周邵諸賢是也”라고 했다. 金昌翁, 「漫錄」, 『三淵集』 卷36.

다.⁷² 그 시의 自註에 “구슬(丸)은 태극을 의미한다”라고 했다.⁷³ 이 말은 태극과 같은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뜻으로, 역리를 탐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태극’이라는 말은 성리학 이전에도 『주역』 「계사상전」에 나온다. “역에 태극이 있으니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라고 한 부분이다.⁷⁴ 소옹은 이러한 ‘주역」 「계사전」을 계승·발전시킨 인물이다. 주자의 『역학계몽』에서도 〈邵子天地四象圖〉를 찾을 수 있다(도 14). 소옹은 〈소자천지사상도〉에서 태극이 나뉘어져 양의라 하고, 양의가 나뉘어져 陰·陽·剛·柔가 되면 四象이라 하고, 사상이 또 나뉘어져 太陽·少陽·太陰·少陰·太剛·少剛·太柔·少柔가 되면서 八卦가 성립됨을 보여준다.⁷⁵

한편 김창흡 이외에도 송대의 주돈이 또한 『太極圖說』에서 소옹과 함께 태극의 이치를 언급해 주목된다. 송대 신유학의 개조로 일컬어지는 주돈이는 『태극도설』을 지어 태극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도해하여 ‘太極圖’를 그리고 이를 해설한 바 있다. 만물 생성의 과정을 ‘태극-음양-오행-만물’로 보고 또 태극의 본체를 ‘無極而太極’이란 말로 표현하였다.⁷⁶ 이 구절에 대해 주희는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실로 조화의 축이요 만물의 근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극이면서 태극인 것이니, 태극 너머에 다시 무극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



도 14 <邵子天地四象圖〉, 『易學啓蒙』, 宋(『性理大全書』 17권,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01)

도 15 鄭敾, <孤山放鶴圖〉, 《김재정선화첩》, 17-18세기, 비단에 담채, 29.1×23.4cm, 왜관수도원 소장

72 “弄丸餘暇 閑往閑來”라고 했다. 소옹 찬, 앞의 책, p. 91.

73 “丸謂太極”이라고 했다. 위의 책.

74 “易有太極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고 했다. 김인환 역해, 앞의 책, p. 529.

75 胡廣 外奉勅算, 『性理大全書』 卷17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01.

76 황견 엮음, 이장우, 우재호, 박세욱(공) 옮김, 『고문진보(후집)』(을유문화사, 2003), p. 1048.

설했다.⁷⁷ 이 과정에서 鄭澈(1676~1759)의 〈孤山放鶴圖〉도 주목된다(도 15). 〈고산방학도〉역시 〈취후간화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화면 속에 매화와 학이 함께 담겨져 있다. 〈고산방학도〉는 임포가 고산의 서호에서 매화와 학과 함께 한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화면 상단의 제시에서 “울음이 들리는 듯하고 향기가 퍼지는 듯하지만 어찌 ‘무성무취’ 같겠는가”라고 했음을 찾을 수 있다.⁷⁸ 〈고산방학도〉의 무성무취가 주희가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주희가 말한 ‘태극’의 본체인 ‘무성무취’는 『시경』 「大雅·文王」에서 보인다. ‘무성무취’는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네”라고 한 데서 온 것으로,⁷⁹ 形而上의 天道를 표현한 말이다.⁸⁰ 이는 또한 『周易』 「謙卦」와도 연계된다. “天道는 가득한 것을 이지러지게 하여 겸손한 것을 보태주고”라고 한 부분인데,⁸¹ 이것은 앞서 살펴본 ‘취후간화’ 화제 분석에서 다루어진 『주역』 ‘풍괘’의 의의와도 상관된다. “해가 중천에 이르면 기울기 시작하고, 달이 차면 이지러진다”라고 한 부분과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⁸² ‘무극이태극’ ‘무성무취’가 안락와의 ‘매화’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취후간화도〉에 등장한 ‘매화’ 이미지는 소옹의 易理와 관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옹이 『易』의 象과 數에 밝아 음양이 순환하고 사물이 盛衰하는 등의 변화를 읽었음을 드러낸다.

3. 鶴 이미지, 邵雍 鶴鳴之士

〈취후간화도〉의 안락와 뒤란의 대숲 주위에는 학 두 마리가 표현되었다. 머리를 들어 부리를 벌리고 우는 듯한 학과 이끼를 쪼는 듯한 학의 모습이다(도 1-4). 먼저 ‘학’의 이미지는 낙양의 안락와에서 은거하며 지낸 소옹의 ‘鶴鳴之士’의 풍모와 연계된다. 『송사』권427 「소옹열전」에는 “낙양유수 왕공진이 선생을 천거하여 장작감주부를 제수하였고, 뒤에 逸士(학덕이 높으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선비)로 천거되어 영주의 단련추관에 보하였으나 바로 명받는 것을 굳게 다

77 “上天之載 無聲無臭 而實造化之樞紐品彙之根柢也 故曰 無極而太極 非太極之外復有無極也”라고 했다. 朱熹, 呂祖謙 共編, 成百曉 譯註 『(譯註) 近思錄集解(1)』 (傳統文化研究會, 2003),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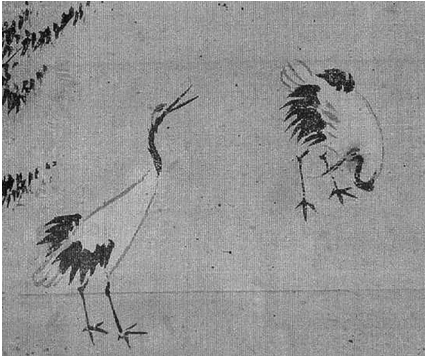
78 “鳴似聞之 香似播之 曷若無聲無臭”라고 했다.

79 “上天之載 無聲無臭”라고 했다. 유교문화연구소 옮김, 『詩經』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p.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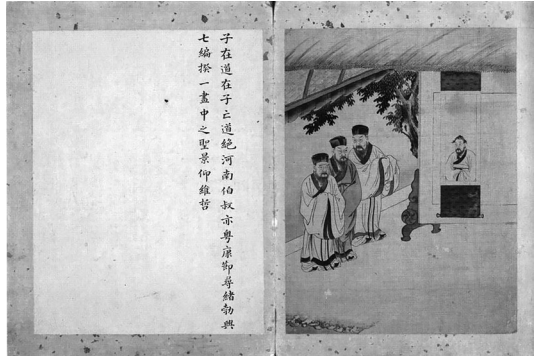
80 “上天之載 無聲無臭 此以天道言也”라고 했다. 朱熹, 呂祖謙 共編, 成百曉 譯註, 앞의 책, p. 111.

81 “天道虧盈而益謙”이라고 했다. 김인환 역해, 앞의 책, p. 145.

82 주 24 참조.



도 1-4 <취후간화도>의 '鶴' 이미지



도 16 尹斗緒, <孟子>, 《十二聖賢畫像帖》, 1706, 비단에 수묵, 43.0×31.4cm, 국립중앙박물관(『조선시대 고사인물화 1』, 국립중앙박물관, 2015, 圖1)

거절하고, 마침내 병을 핑계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채 나이 67세에 생을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⁸³ '학명지사'의 풍모를 지닌 소옹의 기록은 조선시대 당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策文의 시제로도 출제되었다. 16세기 전반의 정치·문화·사회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東策精粹』에는 "강절 소선생은 여러 차례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나 끝내 나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는 모두 그 시대가 끝내 함께 有爲하기에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잊어버리는 데에 과감하여 그런 것인가?"라는 시제가 적혀 있다.⁸⁴

또한 소옹은 '內聖外王'으로도 불렸다. 학술과 덕행을 겸비했다는 뜻으로 정호가 소옹의 학문에 대해 평한 것이다.⁸⁵ 이 과정에서 尹斗緒(1668~1715)의 《十二聖賢畫像帖》(1706) 속 <孟子>도 주목된다(도 16). 《십이성현화상첩》에서 소옹과 정호·정이 형제는 축자(軸)에 그려진 맹자(기원전 372년경~기원전 289년경)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⁸⁶ 맹자 역시 유학의 성인으로 '내성외왕'을 실현했던 인물이다.

한편 소옹은 『詩經』의 '小雅·鶴鳴'편도 중요시했다. 이 「학명」편은 은둔하는 현자와 통치

⁸³ "留守王拱辰以雍應詔 授將作監主簿 復舉逸士 補潁州團練推官 皆固辭乃受命 竟稱疾不之官 卒年六十七"이라고 했다. 脫脫 等撰, 앞의 책 (1985), p. 12728.

⁸⁴ 이정섭 역, 『(국역) 동책정수』(국립중앙도서관, 2006), p. 103.

⁸⁵ 『송사』 卷427 「소옹열전」에서 "河南程顥歎曰 堯夫內聖外王之學也"라고 했다. 脫脫 等撰, 앞의 책, p. 12728.

⁸⁶ 李瀛(1681~1763)은 서문에서 "소강절과 정이친 형제 등 세 분이 팔을 모으고 서서 맹자상의 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합해 한 폭으로 했다"라고 했다. 송희경, 앞의 논문, p. 69 참조;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고사 인물화 1』(국립중앙박물관, 2015), 도판 1 설명 참조.

자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유교적 이미지로 해석된다. “학이 언덕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물고기 물가에 놀다가 이따금 깊은 못에 잠기네. 즐거워라 그의 동산에 박달나무가 심겨져 있고 다른 산의 돌로 옥을 갈 수 있네”라고 한 부분이다.⁸⁷ 특히 소옹은 이 부분에서의 ‘다른 산의 돌로 옥을 갈 수 있네’에 주목했다. 주자와 呂祖謙(1137~1181)이 편찬한 『近思錄』에 葉菜가 주해를 더한 『近思錄集解』에는 “정호가 말씀하였다. 요부(소옹의 자)가 ‘다른 산의 돌로 옥을 갈 수 있네’를 해석하면서 옥은 온화하고 윤택한 물건이니, 만약 두 덩어리의 옥을 가져다가 서로 갈면 반드시 갈아지지 않을 것이요, 모름지기 저 거친 숫돌을 얻어야 비로소 갈아낼 수 있다.”라고 했음이 보인다.⁸⁸ 즉 초야에 묻힌 어진 사람을 맞이하여 이른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보인 것이다. 『承政院日記』 고종 9년(1872) 12월의 기록에서는 “이 편은 대체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이다”라고 했다.⁸⁹

이런 내용들을 통해 <취후간화도>에 등장한 학의 이미지는 ‘학명지사’의 풍모를 지닌 소옹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김홍도 <취후간화도>의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작품 속의 화제와 모티프의 내재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邵雍安樂窩圖’임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취후간화도>는 소옹이 안락와에서 은거하며 천지만물의 이치를 觀照하고 안빈낙도를 실천한 내용을 담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소옹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관물’, ‘선천역학’, ‘안락’ 등의 핵심 개념이 투영되어 그려졌으며 태평세의 화려한 기상을 함께 드러내었음을 살펴보았다.

<취후간화도>는 김홍도가 소옹 안락와의 관련 내용을 모두 체득한 상태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검토된다. 우선, ‘취후간화’의 화제는 소옹의 안락와에서의 사물의 이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관물인식을 보여주었고, 이는 곧 만물이 왕성해지면 곧바

⁸⁷ “鶴鳴于九臯 聲聞于天 魚在于渚 或潛在淵 樂彼之園 爰有樹檀 他山之石 可以攻玉”이라고 했다. 정상홍 옮김, 『시경』(을유문화사, 2014), p. 693.

⁸⁸ “程子曰 堯夫解他山之石可以攻玉 玉者溫潤之物 若將兩塊玉來相磨 必磨不成 須是得他箇礪礪底物 方磨得出”이라고 했다. 朱熹, 呂祖謙 共編, 成百曉 譯註, 『譯註近思錄集解(2)』(傳統文化研究會, 2003), p. 256.

⁸⁹ “此篇 蓋人君治國之要也”라고 했다. 『승정원일기』, 高宗 9年 12月 2日.

로 쇠약해 떨어지는 『주역』 ‘풍괘’의 의의와도 상관되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취후간화도>가 포함된 《중국고사도8첩병풍》 속 <운대주면도>와의 관련성을 통해 진단, 소옹의 선천역학의 전수 관계가 파악되었고, 나아가 <취후간화도>의 주제가 소옹을 담고 있음이 더욱 뚜렷해졌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의 ‘안락와’ 이미지는 소옹의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생활공간으로서 표현되었고, 그 속에 묘사된 경물의 각각에도 소옹의 삶이 반영되어 그려졌다. ‘매화’ 이미지 역시 소옹의 易理와 관계되었다. 매화 꽃송이 하나하나에도 生의 妙가 감돌고 있음을 묘사하였고, 만물의 시원이 되는 태극의 표상이 매화에 비유되었음을 찾을 수 있었다. ‘학’ 이미지 역시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소옹의 ‘鶴鳴之士’의 풍모와 연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시각문화를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연구방법론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철학, 문학, 역사학 등의 인접학문에서의 視覺史料로서의 중요성이 제시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주제어(key words)_김홍도(金弘道, Kim Hong-do), 취후간화도(醉後看花圖, Chwihu ganhwa-do: *Watching Flowers after Drink*), 소옹(邵雍, ShaoYong), 안락와 이미지(安樂窩, Allagwa image), 매화 이미지(梅花, Plum flowers image), 학 이미지(鶴, Crane image), 관물(觀物, Observing things), 태극(太極, Taiji), 선천역학(先天易學, Xiantian-yixue)

■ 투고일 2019년 3월 3일 | 심사개시일 2019년 4월 6일 |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28일 ■

참고문헌

1. 사료

『牧隱集』.
『梅月堂集』.
『四佳集』.
『象村集』.
『星湖僊說』.
『日省錄』.
『弘齋全書』.
『宋史』.
『新唐書』.
『伊川擊壤集』.
『皇極經世書』.
『後漢書』.

2. 한국어문헌

곽신환, 『조선유학과 소강절 철학』, 예문서원, 2014.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 편저,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특별전』, 삼성문화재단, 1995.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고사인물화I』, 국립중앙박물관, 2015.
김인환 역해, 『주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박은순(외) 논고, 『왜관수도원으로 돌아온 겸재정선화첩』, 국외소재문화재단, 사회평론아카데미, 2013.
邵康節 著, 金浚九 譯解, 金周成 監修, 『觀梅易數』, 해들누리, 2001.
邵康節 지음, 노영균 옮김, 『皇極經世書』, 대원출판사, 2002.
송희경, 『조선후기 邵雍故事圖의 유형과 표상』, 『석당논총』49, 2011. 3.
안희준, 민길홍,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 학교재, 2009.
王圻 纂輯, 『三才圖會』, 민속원, 2004.
유옥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弘道 〈雲臺晝眠圖〉의 재검토』, 『미술사논단』45, 2017. 12.
이봉호, 『진단과 소옹의 역학의 관련성』, 『도교문화연구』25, 2006. 11.
이창우, 『邵康節의 象數易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

- 이창일, 「觀物과 反觀-자연주의적 사유의 인문주의적 기획」, 『동양철학』 26, 2006. 12.
 _____, 『소강절의 철학』, 심산, 2007.
- 임재완 역주, 삼성미술관 Leeum 고미술 학예연구실 편집, 『古書畫 題跋 解説集』, 삼성문화재단, 2006.
- 장자 원저, 신동준 지음, 『장자』, 인간사랑, 2012.
- 정병석, 「(소용 탄생 1000주년) 소용의 선천역학」, 『지식의 지평』 11, 2011. 10.
- 정상홍 옮김, 『시경』, 을유문화사, 2014.
- 전성운, 「신광한의 삶의 태도와 邵雍 지향」, 『한국언어문학』 90, 2014. 9.
-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 최형록, 「邵雍의 觀物사상과 자연과의 소통 詩學 연구」, 『中國學』 33, 2009.8.
- 풍우란,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까치, 2002.
- 호림박물관 편, 『호림박물관 명품선집Ⅱ』, 호림박물관, 1999.
- 황성남,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2.

3. 동양어문헌

- 郭營, 廖東 編, 『中國歷代人物像傳』, 濟南濟魯書社, 2002.
-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編, 『故宮書畫圖錄』, 臺北國立故宮博物院, 1989.
- 國立故宮博物院編, 『故宮博物院藏品大系』, 紫禁城出版社, 2011.
- 林素芬, 「從 觀物 到 安樂-論邵雍生命哲學的實踐開展」, 『國立臺灣師大學報: 語言與文學類』 57, 2012. 9.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編, 『中國美術全集-繪畫編』, 文物出版社, 1985-1989.
- 海外藏中國歷代名畫編纂委員會, 『海外藏中國歷代名畫』, 湖南美術出版社, 1998.
- 胡廣 等纂, 『性理大全書』,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국문초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弘道의 《중국고사도8첩명품》 중의 한 폭인 〈醉後看花圖〉는 그간 학계에서는 송나라 林逋가 西湖의 孤山에 은거하며 매화와 학을 벗 삼은 故事를 담은 그림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취후간화도〉의 畫題와 화면상의 모티프 구성의 재검토를 통해 북송대 邵雍의 洛陽 安樂窩에서 은거하며 安貧樂道를 실천한 내용을 담은 ‘邵雍安樂窩圖’임이 규명되었다.

〈취후간화도〉는 전체적으로 필치가 섬세하며 정돈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선, ‘취후간화’의 화제는 소옹의 안락와에서의 사물의 이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관물인식을 보여주었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의 ‘안락와’ 이미지는 소옹의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생활공간으로서 표현되었고, 그 속에 묘사된 경물의 각각에도 소옹의 삶이 반영되어 그려졌다. ‘매화’ 이미지 역시 소옹의 易理와 관계되었다. ‘학’ 이미지 역시도 안락와에서의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소옹의 ‘鶴鳴之士’의 풍모와 연계되었다. 궁극적으로 〈취후간화도〉는 소옹 철학의 형성을 이루는 ‘관물’, ‘선천역학’, ‘안락’의 핵심개념이 그림 속에 투영되어 그려졌으며 태평세의 화려한 기상을 함께 드러내었다.

Revisiting *Watching Flowers after Drink* by Kim Hong-do

Yu, Ok-kyong*

Part of *Chinese Narrative Figure Paintings* (the folding screen of eight panels now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y Kim Hong-do (1745-after 1806), *Watching Flowers after Drink* (Chwihu ganhwa-do) has been introduced as relating a classical story in which Chinese poet Lin Bu (967-1028) led a reclusive life in Solitary Mountains of West Lake taking a plum tree and a crane as beloved companions. Re-examination of its title and of the ways in which pictorial motifs are arranged, however, suggests that the painting is a *Shao Yong's Anle-wo* that depicts the distinguished thinker Shao Yong (1011-1077)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960-1127) who secluded himself in a residence called Anle-wo (Korean, Allagwa: Nest of Contentment and Pleasure) in Luoyang to practice a Confucian virtue of “being contented in poverty and taking pleasure in the Way.”

Watching Flowers features meticulous brushworks and a neat composition. Its title implies a concept of “observation of things” (*guanwu*) that Shao promoted in Anle-wo as a way to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nature and human via principles of things. The hermitage in the composition represents Anle-wo where the Chinese philosopher pursued the life of “being contented in poverty.” Likewise, the plum flowers allude to his theory of *Yijing*. The crane also associates Shao who retreated to the reclusive abode with “a scholar of crane’s calling.” Ultimately *Watching Flowers* exhibits thriving vigor of the period of peace and prosperity, reflecting essential ideas of Shao’s philosophy including “observation of things,” “before Heaven (*xiantian*) cosmological learning,” and “Allag (Chinese, *anle*: contentment and pleasure)”

* Ph.D., Ewha Womans University